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4)	봉헌 (220)	성체 (180)	파견 (54)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봉헌 때 헌금을 내려 나가서 헌금함 앞에 이르기 한 두 사람 전에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포함합니다. 봉헌함에 헌금을 던지듯 넣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소곳이 정성스럽게 봉헌 합니다.
- 성찬 전례 중 사제는 거양(擧揚 :들어올림) 성체(聖體) 후와 거양 성혈(聖血) 후에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하는데,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거양 후 내려놓으신 다음 사제가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할 때 거기에 맞춰 교우들도 함께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합니다.
- 미사 성체 중에 사제가 말로 바치는 부분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부분으로 교우들은 겉으로나 속으로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부분 ("너희는 모두..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니..")과 파견예식 때 사제가 강복을 주실 때 성호경을 따라하는 교우 분들이 있는데 강복은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5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2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9	유 요한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16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30	\$70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2/1	손 아놀드/ 손 쟈마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2/1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2/22	이 요한/ 이 마틸다
11/24	황 가롤로/	12/29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쉼'. 주님의 뜻이자 선물

-박승희 리더야 | 前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를 마무리하고 선수로서의 생활을 은퇴한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는 연락에 '참 행복하게 잘 지내요', '힘든 일이 좀 있어요'라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친하고 편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힘든 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제 인생의 3번째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20대에 삶의 첫번째 전성기를 지냈고, 삶의 첫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운동과 함께 꿈꿔왔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션 디자인입니다. 은퇴하는 순간, 아쉬움과 조금의 후회는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 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은퇴 후 긴 여행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꿈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분야이긴 했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틈틈이 관심을 갖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 다. 한 달 동안,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던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또 디자인 작업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꼭 꿈을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꿈을 빨리 접하고 싶고,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설렜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되돌아보니 저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휴식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나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 제게는 익숙해서인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쉬는 제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쉬어 볼까' 하는 생각은 바로 불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을 챙기면서 휴식 시간을 가져보니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 합창단 성탄 공연** (12/14)

어린이 합창단, 마리아치의 공연이 12월 14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봉사자를 위한 저녁식사 안내**

12/23(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가 오후 5:00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 및 구유예절** 12월 24일

5:39pm 구유예절.

6:00pm 저녁미사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25일

9:30am 한/영 미사

'쉼'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저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고, 매년 경쟁을 했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휴식'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많은 것들이 편하게 느껴졌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휴식도 주님의 뜻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조금 힘들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생각과 함께나 자신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짧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휴식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좀더 사랑하며 하느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느님과 함께 맑고 빛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고 싶을 때 누구와 의논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그 가족이 속한 성당 사무실이나 연령회장에게 알립니다.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이 오랫동안 냉담 상태였거나 일정한 소속 분당 없이 신자 생활을 했을 경우에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고인과 잘 아는 분 중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운명한 경우라면, 그 병원 원목실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톨릭계 상호회사와 계약을 맺어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